

“천년고도서 APEC 성공 개최... 글로벌 대한민국 저력 보여줄 것”

이철우 경북지사, 경주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박차

“21개국 지도자들과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들이 초청되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대한민국 경북도가 이뤄 내겠습니다. 한국의 본원인 경북도와 세계 10위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발전상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겠습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말~11월 초 신라 ‘천년고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자신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경북도와 도민들이 앞장서 뛰는 것은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자력이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APEC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1%, 교역량의 약 49%를 점유하는 세계 최대 규모 지역 경제협력체로,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장 중요한 다자 외교행사라고 평가받는다. 다음은 이 지사와의 일문일답.

—경북 경주시가 인천시, 제주도를 제치고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선정됐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북도와 경주시가 AP EC 정상회의를 유치함으로써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다. 소규모 지방도시인 경주가 국제적인 도시들을 제치고 AP EC 정상회의의 유치가 성공한 것이다. AP EC 유치전 때 인천과 제주가 숙박 등 시설 면에서는 앞섰다. 하지만 APEC은 각국 정상들이 잠을 잘 자려고 오는 게 아닌 한국의 문화와 발전상을 보고 느끼는 행사라는 점을 강조해 유치에 성공했다. APEC 성공 개최는 경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예가 걸린 국가 중대사안 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히 준비하고 있다. 정상회의 기간에 경주를 찾은 21개 회원국 정상과 정부 대표단, 기업인, 기자단 등 2만여명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

—어려운 점도 있을 텐데.

“시간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준비 기간은 짧는데 해결해야 할 일이 넘쳐난다. 특히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와 달리 준비 기간은 2개월 정도가 짧고 각국 정상이 묵을 스위트룸(PRS), 국제미디어센터 등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대부분의 기반시설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경북도와 경주시가 ‘APEC 준비지원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 및 국회, 경제계와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도 신속히 구축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신라 삼국통일 이후 경북도에서 열리는 가장 큰 이벤트로 진행된다. 준비 중인 주요 행사

K콘텐츠 활용 ‘문화 APEC’ 준비
한복·한옥·한식 등 ‘5韓’ 적극 홍보

SMR·철강 등 지역 신산업 소개
기술한류박람회·투자설명회 마련

트럼프·푸틴 대통령 등 방한 요청
차기 개최국 중 시진핑 참석 유력

신냉전 종식 논의하는 계기 될 것
7조 4000억원 경제 효과도 기대

APEC 정상회의의 주요 행사		
정부 주도	1~2일차	고위관리회의(SOM)
	5~6일차	정상회의(AELM)
민간(경제) 주도	1~2일차	분야별 장관회의(SMM), 고위급 대화 및 실무회의
	3~4~5일차	기업인자문회의(ABAC), CEO 서밋(Summit)

를 간략히 소개하면.

“APEC 정상회의를 평화·경제·문화 관광 반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본 콘셉트다. 우선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정상들의 참석을 이끌어 내기 위해 물밑 외교전에 나서고 있다. 한·일·중·러 정상이 참석하면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냉전의 종식을 알린 1988서울올림픽처럼 동북아시아 평화와 나아가 세계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경제 APEC과 관련해 각국 정상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소형모델원자로(SMR, 경주), 이차전지·철강(포항), 반도체·정보통신기술(ICT, 포항), 자동차·조선(울산) 등 지역의 미래 신산업 현장 시찰, 국내 기업들의 투자유치 설명회, 한·APEC 비즈니스 파



이철우 경북지사가 지난 21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 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너심, 기술한류박람회, APEC 연계 투자 환경 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문화 APEC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5韓’(한복·한지·한옥·한글·한식)과 K팝, K푸드, K콘텐츠 등을 활용해 한류 붐을 확산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국내외 정세 급변으로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지금은 계엄 사태로 흔들린 한국이 견제하고 안정적이라는 확신을 심어 주는 게 급선무다. 머지않아 탄핵 사태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국내외의 불확실한 정치 환경이 종식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APEC이 21세기 신냉전 시대 종식을 논의하는 세계적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21개국 모든 정상의 참가를 요청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전뿐만 아니라 국가적 역량이 최대한 결집되도록 노력하겠다.”

—APEC 기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의 방한이 가능할까.

“지난 1월 경북을 방문한 다이빙 신인주한 중국대사와의 면담에서 시 주석의 APEC 참석을,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만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지난 10일엔 경북도청을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대사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특히 시 주석의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은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이해한다. 중국은 2026년 AP EC 정상회의의 의장국이다. 차기 의장국은 직전 연도 회의에 참석하는 게 외교 관례다.”

—최근 APEC 정상회의를 위한 첫 번째 사전 회의인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지난달 24일부터 9일까지 2주간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정상회의의 사전 준비와 예행연습의 성격을 지닌 SOM1을 개최했다. 각국 대표단 등 총 1880명이 참가해 100여 차례 회의 등을 진행했다. SOM1 행사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설문조사 5개 분야(수송, 숙박, 문화공연, 관광, 시설·운영지원)에서 평균 점수 94점을 기록했다.

—각계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경주를 방문해 APEC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어떤 내용인가.

“이달 들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APEC 정상회의의 기간 열릴 경제인 행사 ‘CEO 서밋’의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등이 경주를 방문해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시설을 둘러봤다. 행사 활성화와 방안 논의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주 APEC 성공 개최 시 기대 효과는.

“APEC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7조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직접효과는 3조 3000억원으로 경제 활성화, 내수 소비 활성화 등이 포함됐다. 경제·사회적 편익 등 중·장기 간접효과는 4조 1000억원으로 분석됐다. 취업 유발효과는 총 2만 2634명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딜로이트 컨설팅과 공동으로 분석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도민과 국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사회에 확인시켜 주도록 하자.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함께 ‘열탑’이 돼 APEC을 철저히 준비하는 만큼 도민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

안동 김상화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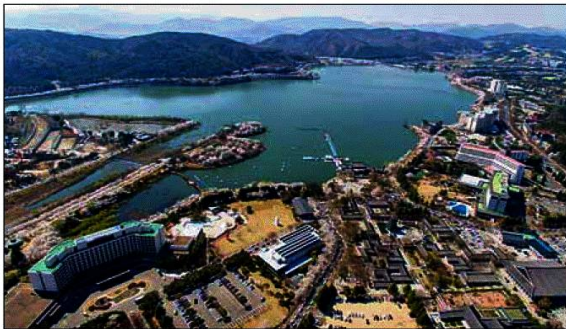
숙박·회의·전시장 등 5분 이내 연결... 준비된 '글로벌 컨벤션 도시'

'APEC' 주무대 보문관광단지

1979년 개장한 한국 첫 관광단지
2005 APEC 한미정상회담 열려
국빈 위한 로열 스위트 25곳 확보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주무대가 될 보문관광단지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1200만㎡ 규모의 보문관광단지는 경주를 국제적인 문화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지로 조성된 대한민국 첫 관광단지다. 1979년 개장했다. 그동안 대한민국 관광산업의 성장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왔다. 올해 지정 50주년과 APEC 정상회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주 행사가 열리는 경북 경주 보문관광단지 전경. 경북도 제공

의 주 개최지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이곳은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경주 도심에 자리하고 있다. 회의장과 숙박, 전시장 등

이 5분 이내 거리에 있어 회의 진행의 최적지로 평가된다. 2005년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당시 한미 정상회담이 보문관광단지에서 개최된 바 있다.

전 지역이 온천지구 및 관광특구로 지정돼 있고 국제회의시설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비롯해 5성급 호텔과 특급 스위트룸 등 숙박시설, 골프장과 테마파크 등 레저·휴양시설 등이 모여 있는 등 관광 기반이 완비돼 있다. 주변에 대형 항공기가 오가는 김해 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포항경주공항, 울산공항 등이 있고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다양한 교통 기반을 갖췄다.

특히 프레지덴셜 로열 스위트(PRS)급 객실 25곳을 확보한다. 기존 PRS 객

실 14곳은 개보수하고, 6개 숙박업소에 9개 객실을 추가로 만든다. PRS는 국민이 머무는 최고급 객실로 침실, 거실, 겸용접실, 회의 공간, 수행원 숙소 등을 갖춘다.

정상회의 기간 보문관광단지는 민간인 출입이 전면 통제된다. 완벽한 경호를 위해서다.

김상철 APEC 정상회의 준비지원단은 "보문관광단지를 중심으로 각국 정상 회의장 및 국제미디어센터 조성, 문화행사 공간 확보 등 정상회의 준비에 필요한 기반을 완벽히 구축하고 있다"며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보문관광단지가 글로벌 컨벤션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김상화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김석기) 위원들이 지난 21일 경주를 방문해 10월 말 경주 보문단지 일원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북도 제공

“APEC 성공 지원” 국회 외통위 경주 방문

**정상회의·만찬장 등 시설 점검
교통·숙박·의료대책 보완 주문
“道·市 행정력 집중 완벽 대비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해 지난 21일 경주를 찾았다. 이날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 국가적 행사인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현장을 둘러봤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13명의 위원들은 이날 정상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비롯해 미디

어센터, 만찬장 등 시설을 둘러보고 수송·교통, 숙박, 의료대책 등 지방 차원의 전반적인 준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들은 지난 9일까지 치러진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SOM1을 통해 제기된 미비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경북도와 경주시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정상회의를 완벽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경북·경주의 문화적 아름다움

을 세계에 알리고, 경주가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양금희 도 경제부지사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만들기 위해 경북도·경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 차원에서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전폭적인 국비지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13일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으며, 조만간 더불어민주당(10인), 국민의힘(7인), 비교섭단체(1인) 등으로 특위를 구성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진만 기자 factk@imaeil.com

양승진 기자 promotion@imaeil.com

“불가피한 돌발 상황 생기지 않는다면 시진핑 中 주석 경주 APEC 참석할 것”

일본서 한중일외교장관회의
차기 개최국 정상 자격 전망

오는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가 명실상부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상호협력 무대가 될 전망이다.

내년도 APEC 개최국이자 G2의 한 축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외교가에서는 시 주석이 경주를 방문할 경우 APEC 회원국 정상들의 참석 열기가 높아지고 다뤄질 안건도 다양해지면서 성과도 한층 더 풍성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우리 외교부 관계자는 시 주석의 경주 방문 가능성에 대해 “거의 (참석을) 전제하고 한중이 얘기를 나눈 느낌”이라며 “아주 오지 못할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으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국이 공개적으로 얼굴을 붉히는 정도의 전면적인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 이상 시 주석이 차기 개최국 정상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한중관계 악화의 불씨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21일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외교부장 겸임)과 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낳고 있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중국 철골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 측이 단호한 입장을 밝혔고 중국 측에서도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광준 기자 june@imaeil.com

김상철 APEC준비단장의 비지땀... 최 대행 흡족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경주에서 바쁜 하루를 보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 점검차 지난 20일 경주에 들른 최 대행은 교통, 숙박·보안·의료 체계 등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교촌마을도 둘러봤다.

최 대행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주낙영 경주시장을 만나 지난달 24일부터 2주간 경주에서 열린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가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호평을 받은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 대행은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경제 회복력을 국제 사회에 확인시켜 준 기회였다”고 했다.

이어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경북도·경주시, 민간이 ‘원팀’이 돼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최 대행이 칭찬한 고위 관리자회의 성공에는 김상철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장을 비롯한 준비단의 땀 흘려 노력한 결과이다.

김 단장은 최 대행 일해 현장 안내에서도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인프라 조성 추진 과정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행은 김 단장의 빈틈없는 준비에 흡족해했다.

김상철 단장은 “부산 APEC 정상회의와 달리, 정상회의장 외 미디어센터 등 대부분의 기반 시설을 새로 조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지난해 예비비 투입을 통해 실시설계를 진행, 최신공법을 도입해 공사 기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회의 개최 1개월 전인 9월 말까지 월드클래스 수준의 시설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과 경주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시·도민 열망을 하나로 모아 역대 가장 성공적 행사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초일류 국가로 도약시키는 초석을 놓겠다”며 “이를 위해선 범정부적 차원의 범업을 통한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수송 대책, 문화 프로그램 등 행사 준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 도지사와 주낙영 시장과 함께 교촌 한옥마을을 찾아 떡 만들기와 다도 체험 등에 직접 참여하고 ‘최부자 아카데미’를 주재했다.

김상철 APEC 정상회의 준비 지원단장을 비롯한 준비 지원단 직원들의 노력이 돋보인다. 고위 관리자 회의 성공은 완벽한 준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오는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열리는 본행사 성공이다. 경주를 찾는 정상 일행이 불편 없이 마음껏 보고 즐기도록 볼거리 즐길 거리 준비에 민관이 하나가 돼야 한다.